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만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 성경: 누가복음 15장 11-32절

Tag:

11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3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 하겠나이다 하나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5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27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이게 됴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32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눅15:11-32)

오늘 본문 말씀은 잃어버린 드라마 이야기와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이야기 뒤에 나온다. 세 이야기 모두 주제는 다시 찾았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

두 아들이 등장. 형과 아우. 그러나 형과 아우는 갈등관계로 묘사됨. (오늘은 심리적인 해석을 사용하겠음. 말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 있음. 오늘은 구원이나 죄에 대한 회개에 관련된 주제로 접근 하지 않겠음.)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으며, 항상 대화하는 존재. 둘째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빠서라기보다는 형과의 관계에서 갈등 관계였다. 아마도 질투하는 관계? 그래도 아버지의 그늘 밑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아버지의 우산; 아버지의 보호)

- 왜 아버지의 그늘이 중요한가?
- 형제라도 이권 앞에서는 싸우는 것이 인생. (적게는 서로 도울 수 있지만, 이권 앞에서는 싸움)
 - 오직 아버지만 공정하다. 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버지만 아신다.
 - 막내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
 - 어떤 아들이 똑똑한지, 그에게서 어떻게 돈을 받아내서 남 모르게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를 아시는 분은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버지.
 - 우리는 이것을 아버지의 우산이라고 표현하자.
 - 아버지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 아버지의 우산 속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며 보호를 받으며 쉼을 얻는다. 그래야 다시금 힘을 얻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한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가 공정하다. 아버지가 필요하다. (남편도, 아들

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아버지가 제일 필요하다)

-혈육의 아버지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모든 인생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우산 역할을 하는 것은 교회, 교인들은 형제와 자매들이다. 교인들끼리 갈등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자. 서로 예절을 지키며 존중하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라고 하셨다.

-갈등을 견디지 못한 둘째의 독립선언. 방탕하고 탕진함.

-형은 모범적. 뭐든 잘 해냄. 동생은 허랑방탕 주의자. 아무리 해도 형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생을 즐기더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 것 같음. (꼭 저렇게 살아야 인생인가? 나는 인생을 멋지게 살거야! 도시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친구 이야기 들었어. 이런 삶은 사실 촌스러운 삶이야)

-나름대로 계획은 있었을 것임. 잘 되는 것 같지만, 항상 예기치 않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끝내는 곤란한 지경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 인생 이야기.

-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위험한가?

-그것은 스스로가 아버지의 음성 보다는 속이는 자의 음성에 가깝기 때문이고, 속이는 자의 음성은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불안감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한개 사면 10만원 열 개 사면 50만원)

-이 불안감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인생이 우상숭배나 미신에 빠진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얻게 한다.

-그래도 남의 품꾼이 되어 돼지 쥐엄 열매조차 먹지 못할 때 아버지를 추억함.

-자기 스스로를 이제는 품꾼으로 설정함.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할 줄 아는 자가 지혜를 얻는다.)

-자기 위치를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것이 겸손. 아주 중요한 품성으로 참으로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만 행할 수 있는 것.

-겸손이란 결코 어렵지는 않지만, 비굴함과 혼동하기 때문에 아주 헷갈리는 품성. 만약 마귀가 이 순간 귓가에서 너 차라리 이럴바에야 가오 잡고 할복하라고 속삭이면 결코 취할 수 없는 것이 겸손.

-겸손해야 할 중요한 순간. 마귀는 나를 겸손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그 까짓것 없어도 된다고. 내가 이리려고 초등학교 되었나? 내가 이리려고 결혼했나? 내가 이리려고 이 회사 들어왔나? 이 회사 아니면 내가 갈 곳 없을 줄 알아? 그래 다 터트리고 같이 망하자. 내가 너를 끝까지 저주할거야.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차라리 죽어라. 나 한사람 죽으면 그만이야 등등. 마귀는 나를 비굴한 자로 만들려고 한다.

-비참한 순간이라고 느끼는가? 가장 중요한 품성은 겸손함이다.

-비굴한 느낌이 드는가? 그때 가장 중요한 품성이 겸손함이라는 것을 바로 직감하는 것이 영성.

-돌아온 둘째를 맞이하는 모습이 너무 다른 아버지와 큰 아들

-큰 아들은 동생을 패륜아로 분류.

-가산을 탕진한 자. 창기들과 놀아난 가문의 수치.

-버젓이 기어들어오는 파렴치범.

-버러지 같은 인생을 용납해 주는 아버지가 밉다.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다니, 혈 저 송아지 내가 애써 먹이고 키운 놈 아닌가? 저놈이 태어날 때 내가 밤을 새며 받아 냈는데, 저놈이 먹어 치우다니. 하필이면 늙은 소가 아닌 송아지라니...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은 다르다.

-이놈아 죽었던 네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

32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 모른다.

-너의 질투가 이 아이를 죽였으며, 너의 정죄가 이 아이를 죽였다.

-이놈아 어찌 빼꾸기 노릇을 하려고 하니?

-지금 돌아온 저 아이는 네 동생이니라. 네가 기뻐하지 않는걸 보니 혹시 네가 빼꾸기 새끼니?

-아버지는 잃었다가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죽었던 네 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내가 빼꾸기가 아니라면 나는 동생을 기뻐한다.

-우리는 서로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내가 키우던 송아지가 아까운 순간 자신의 정체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나는 형제인가 빼꾸기인가?

-눈을 감고 다른 교회를 방황하거나 교회에 다니지 않은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추억해 보자. 그리고 그에게 나는 빼꾸기가 아님을 증명해 보자.

<찬양예배>

제목 : 성경: 잠28:1-2

Tag:

1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 같이 담대하니라

2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잠28:1-2)